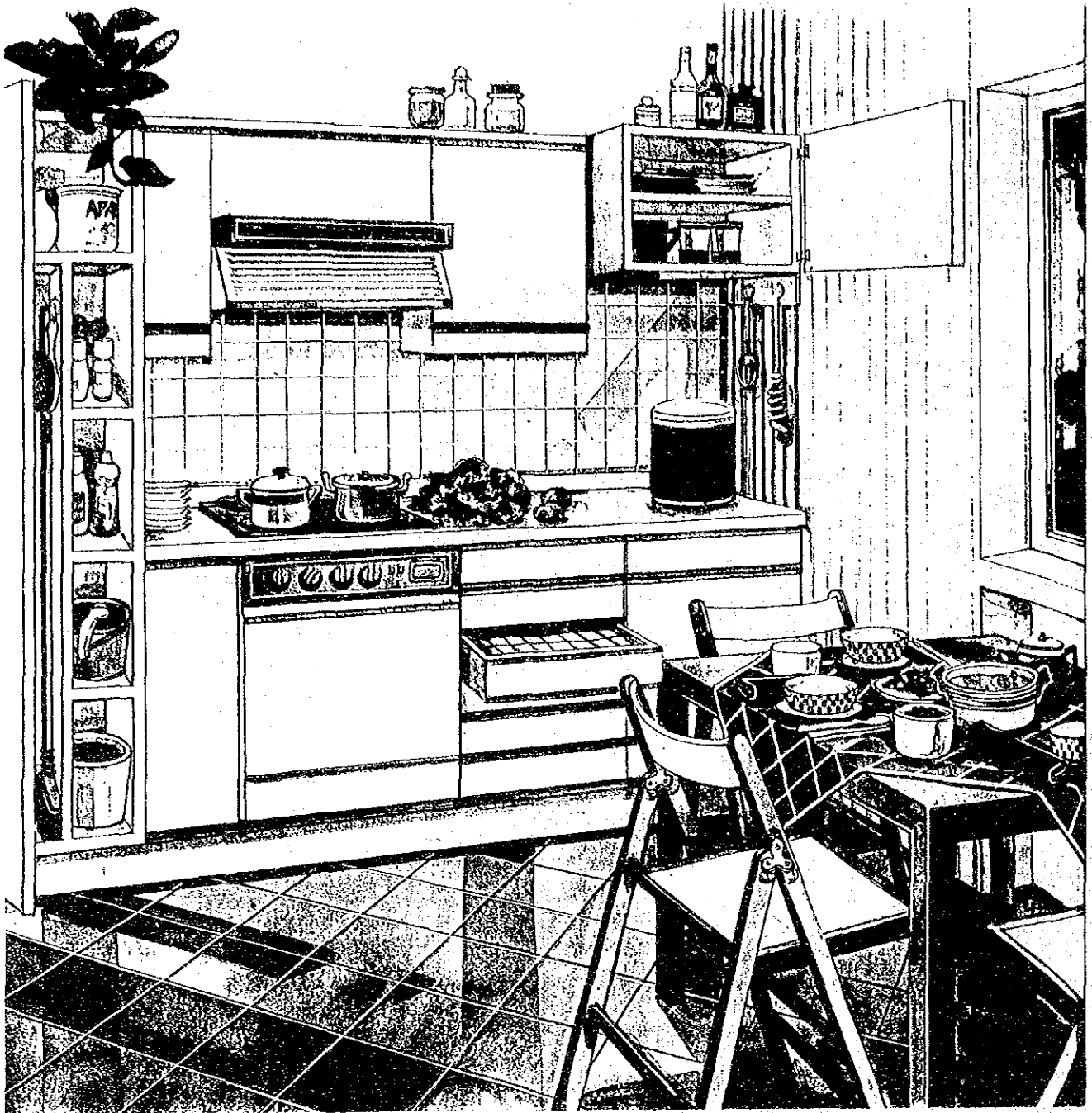


**집안에서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방법**

아기가 처음으로 방안을 자유롭게 기어다닐 수 있게 되기 전에 방안을 세세히 살펴 무엇을 버리고 정돈해 둘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두 도면에 나타난 안전에 관한 포인트들을 유의해서 살펴 주십시오.

아기의 방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1. 아기의 이불은 너무 푹신푹신 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얹쳐서 잠을 잘 때 푹신한 이불이 코를 막아 질식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전기 소켓에는 안전용 플러그를 끼워서 아기의 손가락을 넣지 않게 합니다.
3. 찬장이나 벽의 질동은 벌어지지 않게 확실히 매달아야 합니다.
4. 창문은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어야 하며 창문은 어린이 힘으로는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5. 개단 맨 위에는 출입문을 달아야 합니다.
6.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장난감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또는 해로운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7. 목욕탕,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물통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8. 아기들에게 위험한 물건은 방안에 두지 마세요.
9. 문감 위에 스탠드를 놓아두지 마세요. 알선구를 만질 염려가 있습니다.
10. 난로가 있을 때는 보호철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주방의 안전을 위해서는 ……

1. 넘어지지 않도록 가스대 주변에는 보호 격자를 설치합니다.
- 2.냉장고의 문은 자석식으로 닫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전기 도구는 높이 메달아야 하고 끈을 사용해 달아 놓지 말아야 합니다.
- 4.쓰레기통은 높이 놓아두어야 아기의 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5.비를 넣어두는 통은 항상 잠금되어야 하며 화학약품은 제일 높은 곳에

- 잠금 되어야 합니다.
- 6.아기가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프라스틱 봉지는 아기가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 7.광택재류는 높은 곳에 두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야 합니다.
- 8.식탁보는 덜지 않으며 특히 뜨거운 주전자는 뒷쪽에 둡니다.
- 9.술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유리는 특히 아기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놀라운 순간이 곧 오게 됩니다.

생후 7~8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아기는 당신의 손을 잡고 짚간동안이나 마 서 있을 수 있으며 잠자리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앉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아기가 처음 비둥기릴 때부터 첫 발자국을 옮길 수 있을 때까지의 8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묘하게 들리겠지만 아기들은 맨 처음에 단지 눈으로서 걷는 것을 배웁니다. 신생아는 아직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만일 발이 바닥에 닿을 때는 반사적인 걸음마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적 행동은 몇 주일 후에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 생후 2~3개월째가 되면 아기의 눈의 기능은 아주 발달해서 최초로 방의 여기저기를 훑어볼 수 있게 되며 바로 이것이 걸음마를 배우는 최초의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 생후 3개월이 되면 아기는 이제 "직립 인간"을 향해 많은 진전을 해서 상체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더 기간이 경과하면 심지어 한 팔로 몸을 지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의 기능이 발전되는 이유는 아기의 팔과 어깨 그리고 목에 까지 걸쳐 있는 신경이 발달되기 때문이며 이로써 아기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아기는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움직임의 동작을 스스로 깨닫게 되며 이미 힘차게 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능성을 아기는 충분히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기의 발전은 흔히 눈에 띄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생후 6~8개월 사이에 아기는 손과 무릎으로 몸을 받혀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기가 매우 귀여우면서도 위험한 때여서 이때부터는 아무것도 아기에게 안진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쯤이면 아기는 앉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다리로 서기 전에 앉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앉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기는 아이에 따라 상이하며 아기는 이 방법을 알아야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생후 11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커다란 일을 이루어 냅니다. 설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기는 해도 아기는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8~10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의지나 보행기 같은 것을 붙들고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아기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개의 근육을 조화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배우게 되면 아기는 이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기는 만 1년간을 열심히 훈련해 왔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기억될 것이며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걸어오는 모습은 영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변기 사용법

당신은 이제 벌써 아기에게 변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뚤은 아기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앉을 수 있을 때부터 계속돼 왔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약간의 의혹감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아기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변기를 사용할 만큼 충분히 인지가 발달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당신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더럽혀진 기저귀의 내용물을 보여 주면서 “응~응”과 같은 간단한 말을 해주고 화장실 안이나 변기통 위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아기에게 해 줍니다.

● 아기를 최초로 아침에 시험 삼아 변기통 위에 몇분간 앉혀보고, 당신의 경험에 미루어 가장 빈번히 아기가 배설하는 시간에도 잠깐씩 앉혀봅니다. 식사한 후에도 앉혀 보도록 하십시오.

● 5분 이상은 변기통 위에 앉히지 말고 아기가 일어사려고 할 때는 결코 억지로 막지 마십시오.

● 아기가 “응 응” 소리와 변기나 화장실 또는 스스로 배설한데 대한 당신의 기쁨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게 되면 아기는 곧 스스로 배설할 의사를 당신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응 응” 소리를 할 줄 알아도 여전히 기저귀를 더럽혀곤 하는데 그렇더라도 결코 아기를 꾸짖어서는 안됩니다.

아기가 배설할 의사를 당신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팔약근이 긴장하거나 방광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기는 곧 변의를 느끼게 되며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변기가 비어 있다고 화를 내거나 단념치 마십시오. 인젠가는 꼭 성공하게 되는 법입니다.

● 그리고 성공을 하였다 해도 당신 자신이 이루어 낸 일에 스스로 자부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아기가 당신에게 준 “선물”에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아기와 함께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쏟아 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기는 마침내 자기의 배설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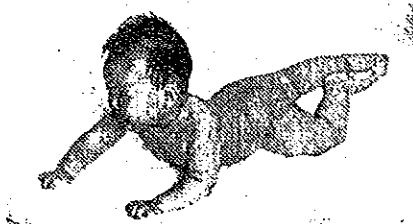


아기가 태어난 후 첫해에 배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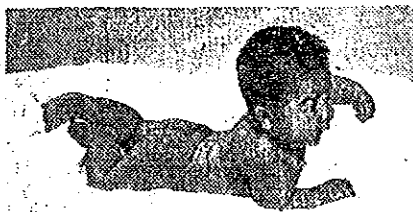
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아기의 성장과정 중 당산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어 다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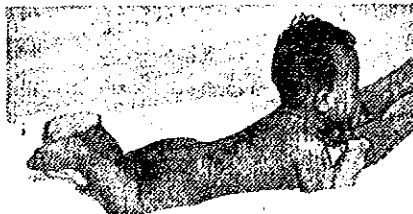
- **신생아** : 얼굴을 앞으로 특히 창문 쪽으로 돌리고 손발을 움직이며 주먹을 쥐거나 무릎을 굽힙니다.
- **1개월 후** : 머리를 들고 적어도 3초간 버틸 수 있습니다.
- **2개월 후** : 약 5cm 이상 10초간 머리를 쳐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후** : 배를 대고 앞드렸을 때 두 팔을 잡고 머리를 45~70°로 1분간 지탱할 수 있습니다.
- **4개월 후** : 앞으로 내뻗은 팔로 안전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손을 벌리며 머리를 뚫끗이 새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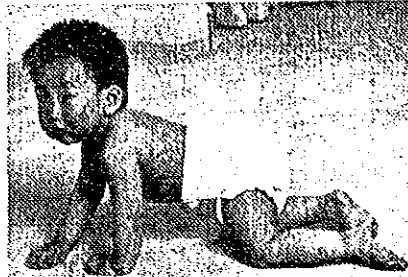
- **5개월 후** : 아기는 이제 "수영을 합니다" 배를 깔고 몸을 진히 받치지 않은 채 허우적 거릴 수 있고 머리와 가슴, 팔을 높이 쳐들 수 있습니다.



- **6개월 후** : 몸을 지탱하는 팔을 굽게 펴며, 바닥이 비스듬할 경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팔을 뻗어 몸을 받칩니다.
- **7개월 후** : 배를 대고 누워 장난감을 향해 한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 **9개월 후** : 한 동안의 과도기가 지나면 이제 앞뒤로 불표범처럼 걸 수 있으며 두 다리도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 **10개월 후** : 이제 손과 무릎을 짚고 몸을 흔들게 되고 아기들 중 90%가 넘어지지 않고도 몸을 사방으로 돌리게 됩니다.



- **11~12개월 후** : 언제나 안전하게 기어 다닐 수 있으며 곰처럼 건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지방을 건너갈 때에는 예전처럼 무릎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서고 걷기

- **1개월 후** : 두발이 딱딱한 바닥에 닿게 하면 두다리를 뻗히고 머리를 잠깐씩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앞으로 가볍게 밀면 아기는 작은 발로서 이미 움직이는 듯한 자세를 지동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 **3개월 후** : 아기를 세워주면 걸으려고 하는 반사적 행동이 사라져 버리고, 놔두면 다리를 굽히게 됩니다. 늦어도 생후 6주가 되면 아기는 이 상태에서 최소한 2초간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도 대부분의 경우 가볍게 벌릴 수 있습니다.
- **5개월 후** : 아기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세워주면 아기는 다리를 뻗어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받치게 되고 바닥을 찰 수가 있습니다. 팔은 느슨하게 굽힐 수 있고 손은 반 정도 또는 완전히 벌릴 수 있습니다.



- 7개월 후 : 아기가 "춤을 춥니다" 세워 주면 아기는 갑자기 다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발을 내칩니다. 이런 발진 단계는 종종 놀라울 정도입니다.
- 9개월 후 : 이러한 동안에 아기는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손으로 붙잡아 주면 아기는 대부분 1분 정도 체중을 완전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 11~12개월 후 : 이제 되었습니다. 아기는 가구를 잡고 스스로 일어나 가구를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손을 잡아주면 앞으로도 발자국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생후 첫돌이 되면 모든 아기의 60%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앉기

- 5개월 후 :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지 아기의 상체를 앞으로 밀어 균형을 잃게 해도 아기는 머리를 뻗뻗하게 유지합니다. 앉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도 머리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 6개월 후 : 이제 스스로 앉기 위해 능동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가 엄지손가락을 아기에게 내밀면 즉시 붙잡고 잠시동안이지만 몸을 끌어 당깁니다. 앉히주면 이미 머리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 7개월 후 : 이미 중요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 자기 발가락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 9개월 후 : 최소한 1분간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자유롭게 앉게 됩니다. 등을 밀면 다리를 다소간 굽히고 앞으로 몸을 뺀 균형을 잡습니다.

● 10개월 후 : 이제 엄마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기는 앉기 위해 스스로 가구 쪽으로 몸을 움직여 가고 몸을 일으킵니다. 다리는 느슨하게 내뻗고 생후 40주가 되면 앉은 자세에서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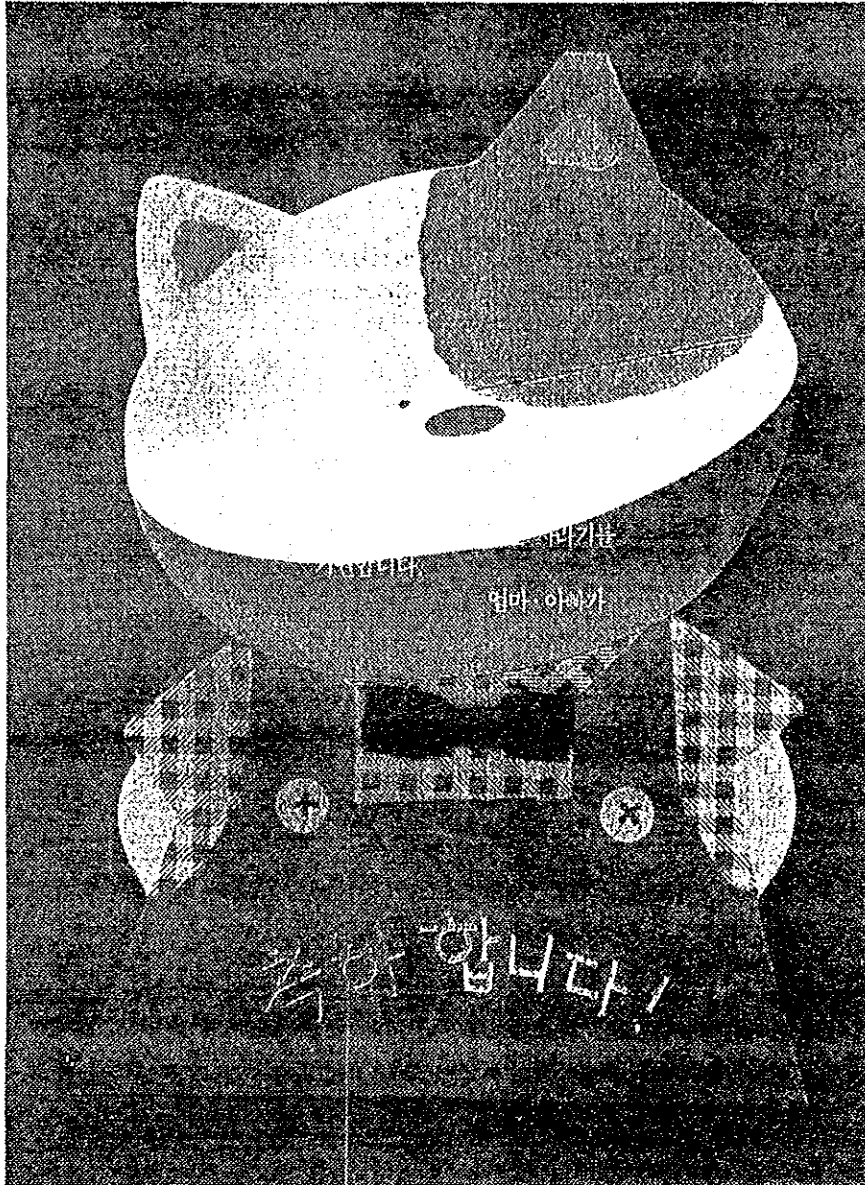
● 11~12개월 후 :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앉을 수 있으며, 엄마가 아기의 다리를 조금 들어 올려도 제치있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아기가 앞이나 뒤로 넘어지면 즉시 올바른 방향으로 지탱하게 됩니다.



아기의 첫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기의 첫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구이 만든 불타는 양초가 꽂힌 케이크를 아기가 먹지 못한다거나 정성을 더해 사준 선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기는 두번째 생일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명예로운 날"을 의식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야 당신이 준비한 것을 아주 즐거워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첫똥 때에는 아기가 두손으로 힘차게 똥상을 향해 다가가기를 비라는 정도로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축” 돌

사랑스럽고 귀여운 맥의 아기가
어느덧 돌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가족일동은
축하인사를 드리며,
더욱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아기는 이렇게 말을 배우게 된다.



이해력이 없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말을 하게 되는 앵무새와 달리 사람의 경우에는 음성 기관의 기능에 사고력이 첨가되어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말은 소리를 받아 들이고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시켜 둘 뿐만 아니라 형성된 의미를 다시 음성기관을 통해 밖으로 표현해 내는 지력과 음성기관인 입, 혀, 인후, 후두부 등과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말을 배우는 최초 단계는 자기가 듣거나 한번 시도해 본 말을 계속 반복하는 흉내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생후 6개월 정도만 되어도 말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생후 1개월** : 아기는 단지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 혹은 다른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아기는 울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울음소리의 강도나 고저를 통해 아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근심거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생후 3개월** : 울음소리가 보다 더 체계적이 되며 자기 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 생후 6개월** : 소리를 지르는 것에서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아기는 처음으로 2음절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어 "맘마, 바바, 디디" 등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은 이때 아기가 "엄마" 정도의 말을 하더라도 아직 당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유병, 장난감, 팔에 안는 것 등 엄마와 관계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 생후 9~12개월** : 무엇보다도 말의 이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합니다. 소리의 결합으로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만 아직도 혼자 만들어 낸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 생후 1년의 결과** :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생후 1년 반**: 아기는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각각의 대상물을 가르키며 그에 맞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물어 봅니다. 매우 빠르게 어휘의 양을 늘려나감에 이제 아기의 '엄마' 소리는 단지 당신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짧은 말들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생후 2년**: 최초로 3단어로 구성된 말을 만들어, 음절을 빼 먹거나 비슷한 말을 섞어서 사랑스러운 아기말을 하게 되며, 많은 부모들은 아기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잘못 말한 아기말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보통 아기들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후 3년**: 아기는 최초의 "완전한"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문장 구성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아기는 800~1000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나"라는 대명사를 쓸 때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치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은 말인 "나"는 언어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는 생후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됩니다.

결론으로서, 당신의 아기가 쉽게 말을 배울 수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몇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 처음서 부터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이가 빠르게 말을 더 잘 배울 확률이 많아집니다.

• 언제나 자연스럽게도 진지하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한 심한 사투리나 아기들 말은 피해야 좋은 언어습관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 단시간내에 강제적으로 아기를 언어의 천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언어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 아기가 말을 더듬거리거나 기타 발음상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신경질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한 언어 장애는 아주 정상적인 아이의 언어 능력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지질로 극복되어지는 현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옳게 들려주면 아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다루게 되면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언어 장애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소아과 의사나 언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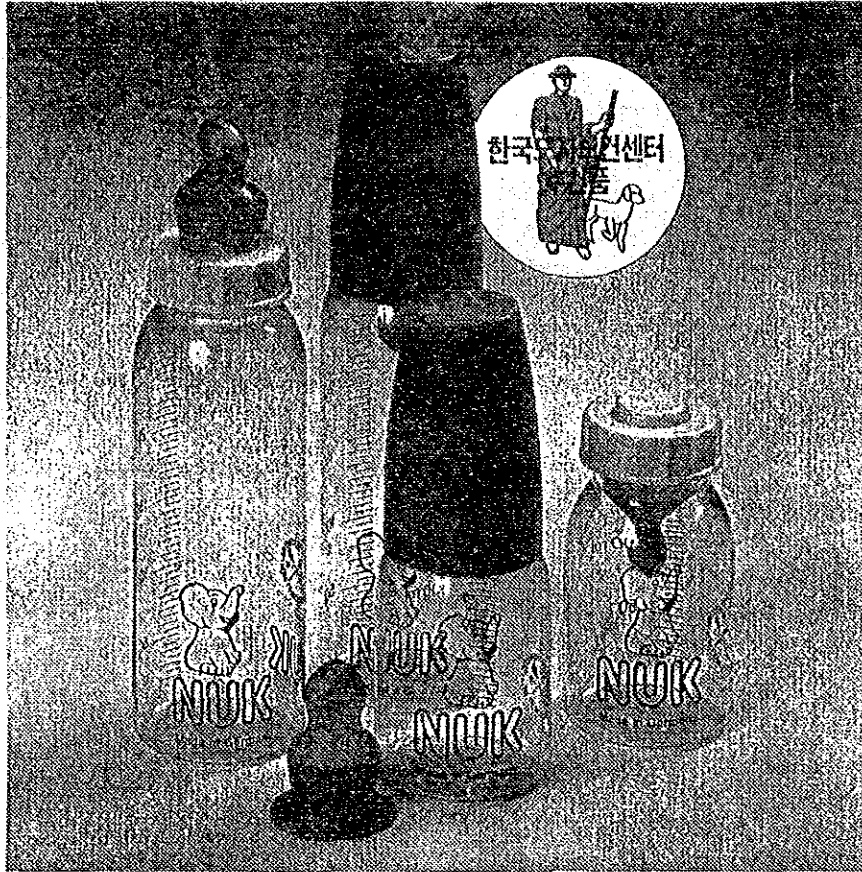
생후 2년째, 아기는 왜 그토록 사랑스러울까?

얼마전만 해도 아직 갸냘팠었습니다. 단지 먹고, 울고, 몇마디 말을 할 뿐 사랑이 돌보고 사랑해 주는 식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과 발전을 해 가면 그것을 대견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져서, 아기의 지각이 눈뜨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는 이제 아기로서의 자기 주위를 스스로 발견합니다. 이러한 발전, 즉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의식의 세계로의 진입은 커다란 모험입니다. 또한 아기가 식물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의 인간, 하나의 작은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역시 커다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기의 이해력이 성장하고 사고력이 증가합니다. 소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랑의 표시를 하며 달과 구름에 대해 신기해 하고 상상적인 말을 아기는 만들어 냅니다. 아기는 스스로 반응하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개미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당신도 새롭게 보고,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이들에게서는 일종의 마력과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어떤 어른도 아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아기에게는 보기 싫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태양처럼 빛나며 당신을 휘어 잡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당신의 아이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번째 기착지인 이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동행하여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자보건센터 가족 일동

NUK 젓꼭지의 장점



- **소화불량 방지** : 혀의 힘이 강해지고
치아발육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젓꼭지 구멍이 옆으로 뚫려 있어
침과 우유가 잘 혼합되므로 소화불량을
방지합니다.
- **토유 방지** : 아랫입술이 꼭 밀착되어
필요치 않은 공기를 마시지 않아 젖을
토하지 않습니다.
- **뺨주걱 방지** : 이부분은 약간 뒤로 제
재쳐져서 아기가 입마 젖을 먹을 때와 같이
아래턱을 사용토록 하여 턱과 얼굴구조를
균형있게 발달시킵니다.
- **무해 천연고무** : 순수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누크 젓꼭지는 엄마젖과 꼭 같은
부드럽고 자연스런 감촉과 FDA에서
착수한 젓꼭지 발암물질 조사에서 전혀
무해한 것으로 판명된 가장 이상적인
젓꼭지입니다.

- **윗입술 든든** : 윗입술을 든든하게 받쳐
줍니다.
- **덧니 방지** : 잇몸과 입술이 젓꼭지를
강하게 맞물리므로 덧니를 방지하고 잇몸을
강하게 하며 과식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 **입천장 튼튼** : 입천장이 건강하도록
자극시켜 줍니다.

*NUK[®] 젓꼭지의 모든 부분은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치의학적 근거에 의해 제조된 것은 누크젓꼭지
뿐입니다.

페나텐의 아기피부 관리법



아기의 즐거운 목욕

아기는 땀을 흘려 머리나 피부가 쉬 더러워지므로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연약하고 각종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감염되기 쉬운 아기의 목욕시 페나텐 샴푸 샴푸와 바스는 뛰어난 효능을 나타냅니다.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천연성분의 무자극성 페나텐 샴푸와, 아기피부에 비타민 등의 영양을 주고 탈지를 방지하여 늘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페나텐 바스 - 그리고 부드러운 페나텐 로션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깨끗하고 부드러워진 머리와 피부에서 페나텐의 우수한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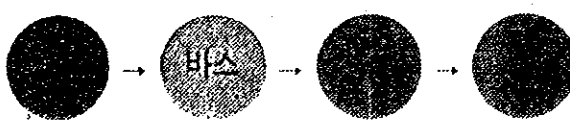
목욕후 두피 딱지 등의 각질부분에는 페나텐 오일을 발라주어 유연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벼운 상처 등에는 살균효과가 우수한 페나텐 크림, 땀띠 등의 우려가 있는 습한 부분에는 페나텐 파우더로 마무리 하세요.

기저귀 발진이나 진무름 예방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들은 오줌의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 피부가 진무르거나 발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저귀를 채우기 전에 페나텐 오일을 솜이나 가제에 발라 지저분한 오물이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페나텐크림을 얇게 펴 바르세요.

그리고 크림 위에 페나텐 파우더를 가볍게 두드려 발라주시면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는 잠자는 동안이나 나들이때도 발진이나 진무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JICA